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자한당, 최저임금 삭감법안 짝짜꿍

28일, 노조 8만여 명 총파업 돌입 ... 민주노총, “노사정 대화 중단, 강력한 대정부 투쟁”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28 총파업을 벌이며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국가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삭감했다

국회는 5월 28일 17시 50분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노사정 대화 중단과 총파업 등 민주노총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자유한국당 등이 이합해 끝내 최저임금법 개악 안을 밀어붙였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최저임금 삭감을 막기 위해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국회 앞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5만여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대화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악 안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이날 전국 40여 개 사업장, 8만여 명



조합원이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조 현대자동차부도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 측은 ‘정차파업으로 직원 피해만 가중한다’는 인센티브를 나눠 줬다. 이에 금속노조는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벌이는 전체 조직노동자의 투쟁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 대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했는지 답하라”라며 분노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도 감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시도하지 못했다.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 강행은 결국 실패했다”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벌인 오만한 권력의 폭거에 맞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9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25%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7%를 제외한 금액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개악 법안에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2019년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사용자는 이른바 ‘상여금 쪼개기’를 강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할 수 있다.

“한국지엠 전체 공장 불법파견 당장 직접고용 명령하라”

28일 노동부, 창원공장 774명 직접고용 시정명령... “부평, 군산공장 근로감독 결과 당장 공개하라”

노조와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5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전원 불법파견 시정명령 환영과 부평·군산 시정명령 발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 774명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과 ‘한국지엠이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

다.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원청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실상 정규직이라는 내용이다.

조합원들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지엠, 검찰 정부에게 ▲부평과 군산공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신속 발표 ▲근로감독 결과 수용과 즉각 정규직 전환 ▲한국지엠 위법행위 철거 수사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정부와 한국지엠은 8,100억 원 가

량의 지원 약속으로 한국지엠 사태는 끝났고 정상화만 남았다”라고 주장하지만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문제해결 없는 정상화는 기만이다”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지금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공장 밖,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농성하며 복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성우메탈 노조파괴 막고, 장시간노동 없앤다”

30일 대전충북지부 결의대회 ... 강제 배치전환, 외주화 강행, 임금 체불 등 노조파괴 백화점

노조 대전충북지부가 현대성우메탈 정몽용 자본이 벌이는 노조파괴에 맞서 분사 타격 투쟁을 벌였다. 현대성우메탈은 현대차그룹의 친족 기업으로 자동차 일류미늄 휠을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다.

노조 대전충북지부 현대성우메탈지회(지회장 김희수)와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은 5월 30일 15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성우메탈 분사 앞에서 ‘강제전환배치 분쇄, 장시간 노동 개선, 외주화 저지, 현대성우메탈 노조파괴 분쇄를 위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파괴를 노린 표적 강제 전환배치 중단과 노조 간부에 대한 임금 지급, 장시간노동 개선, 외주화 중단을 요구했다.

김희수 현대성우메탈지회장은 “현대성우메탈은 현대차의 사촌기업이다. 안정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매년 100억 원씩 이익을 내는 회사다”라고 지적했다. 김희수 지회장은 “시축이 잘나가는 뒤쪽에 20년 동안 12시간 맞고대로 주말에 쉬지 못하고 연간 3500시간씩 일한 노동자들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수 지회장은 “어용노조가 회사의 노무 관리 부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희수 지회장은 “어용노조는 교대제 전환 관련 시축이 진행되는 외주화에 협조하며, 합의 도장을 찍으려 한다”라고 전했다.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현대성우메탈에서 벌어지는 강제 전환배치는 생산조정이나 분업이 아닌 오로지 노조파괴를 위한 것이다. 지방노동청이 부당노동행위에 눈을 감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김정태 지부장은 “현대성우메탈은 노조파괴와 외주 용역화를 꿈꾸지 마라. 만일 자본이 이를 밀어붙이며 끝까지 갈 거라면 이후에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성우메탈 자본에 있다”라고 경고했다.

김현미 노조 부위원장은 “민주노조는 우리 스스로 키우는 조직이다. 정권이 바뀌고 약간의 기대가 있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노조 탄압을 위해 임금을 깎는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막무가내를 막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현대성우메탈지회의 투쟁은 매우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려는 싸움이다. 금속노조가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변승규 노조 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 김희수 현대성우메탈지회장, 임성우 대전충북지부 교선부장이 회사 대표자와 면담하며 강제 전환배치 관련 문제 해소, 교대제 개편과 외주화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은 현대성우메탈이 즉시 답을 내놓지 않자, 일급 시간 동안 집회를 이어가며 답변을 요구했다. 시축은 전환배치 거부자의 임금 지급에 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히고, 현대성우메탈의 교대제 외주화 관련 정보를 지회에 내놨다. 대전충북지부는 22시쯤 대화를 마무리했다.

“힘내라, 흥기탁·박준호·파인텍지회”

파인텍지회 굴뚝 고공농성 200일... “노동자가 노동존중 사회 만들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지부 이산위원회 등 조합원들이 5월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스티플렉스 본사 앞에서 ‘파인텍지회 굴뚝 고공농성 200일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고용보장, 노조보장, 단협보장’ 등을 요구하며 75m 굴뚝 위에서 200일째 농성 중인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흥기탁·박준호 조합원과 함께 문재인 정부와 스티플렉스 김세권 사장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차광호 파인텍지회장은 “김세권 사장은 면담을 거부하고 사무실마저 비워버렸다. 김세권 사장의 행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 떠오른다”라며 “굴뚝 위 두 조합원이 건강하게 땅으로 내려오려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가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자본은 노사협의를 깨고 노조를 파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지행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며 “자본은 정부와 사법당국

이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진 듯하다”라며 분노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스티플렉스 본사에서 두 조합원이 농성 중인 목동 서울에너지공사 열병합발전소 굴뚝 앞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두 조합원에게 ‘힘내라’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펼쳐 보이며 힘을 북돋웠다.